

해외건축동향.

글. 김은미_ Kim, Eun-mee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태양을 설치하다

Solar On



팀 오스트리아의 당선작



팀 오스트리아의 당선작

LIS(Living Inspired by Sustainable Innovation)라고 명명된 세련되고 개방적 형태의 디자인 결과물을 보여준 팀 오스트리아는 U.S. Department of Energy's Solar Decathlon(미국 에너지국 주최 태양광 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하였다. 격년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19개의 대학을 초청하여 획기적인 태양광 동력 기반의 집을 짓고, 미국 오렌지 카운티 그레이트 파크에서 대중에 공개하였다. 참가 작품들은 10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심사되는데, 그 중 주요 사안은 건축 작품성, 가격 적정성, 에너지 효율성이다. 오스트리아의 참가작은 대개 눈이 많은 지역에서 위장막으로 사용되는 군수품인 유연한 백색의 직물로 커튼을 만들어 외부를 디자인하였다. 이 나무 재료로 만들어진 디자인(미국 내 약 96%의 일반 주택들이 이 재료로 만들어 지는 한)은 슬라이딩 포켓 도어와 수풀이 우거진 큰 규모의 데크를 통해 내부의 모습을 펼쳐 보이며, 설치된 태양광 발전 동력 시스템으로 집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충당한다.

라스베이거스와 체코 공화국의 작품은 오스트리아의 작품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팀의 작품은 재생목으로 아름답게 마감한 'DesertSol'이라는 이름을 가진, 흡사 사막지역 전초기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팀 체코 공화국의 'AIR House'는 작품성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집 속의 집"이란 개념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외부 공간에 큰 목초 공간을 마련하였다.

캘리포니아의 팀들은 매우 훌륭한 계획을, 게다가 흠 팀인 상황에서 제시했음에도 최고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팀 스탠포드는 다섯 번째에 랭크되었으며, USC는 10번째, UC-Santa Clara는 11번째, 그리고 SCI-Arc Caltech은 14등을 차지하였다.



2등을 차지한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교 학생 작품

사이아크와 칼텍 팀의 작품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그 본질에 접근한 작품이었다. 'DALE' 이라 이름 지어진 이 집은 레일



3등의 체코 기술대학 작품

위에 두 개의 집을 나누어 배치하였다. 사실상 이번 대회 거의 모든 집들은 진열장과 같거나, 비현실적인 날렵함을 뽐내거나, 최신 유행의 디자인이거나, 그리고 지속가능성 기술은 현재 기술 스탠다드에 비해 훨씬 앞선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부터 중수관리시스템, 선진의 단열 기술 등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출품된 모든 작품은 그 집의 에너지 예상 사용량보다 에너지를 많이 생산한다고 대회 주최 측은 밝혔다.



Sci-Arc와 Caltech의 작품

이 대회는 National Mall in Washington D.C.에서 시작해 10년 동안 계속 개최되어 왔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그레이트 파크는 전국에서 20개의 도시들이 참가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장소였으며, 다행히 이 행사는 지난 번 미국 연방 정부 폐쇄 때도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태풍 시기도 피할 수 있었다. 올해의 행사는 그레이트 파크 11에이커 공간에 19채의 솔라 하우스들만 전시된 것이 아니라, 가정집과 정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 그리고 심지어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등 다방면의 지속 가능한 기술을 보여 주는 엑스포로 확장되었다. 각 팀들에게는 작품을 짓는 시간이 9일만 제공됐고, 시작 시점부터 흥분되고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그레이트 파크가 많은 군중을 잡아 끌기에는 부적합한 장소라고 고민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나 6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줄을 지어 출품된 모든 작품들을 둘러 보았다. 이 행사는 대학교가 혁신적인 지속 가능성을 개발시키는 완벽한 연구소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행사 측은 밝혔으며, 심사위원들은 행사에 쏟아 부은 학생들의 어마어마한 노력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㉔